

## 제 8 강 무의식적 반복강박과 그 대상에 대하여

### ◆ 무의식과 욕망

#### ▲ 무의식과 타자

무의식 대타자의 담론이라고 언급한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적인 구조로 정의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정의 내린 무의식을 다시 언어적인 구조로 정의한 것이 라캉의 새로운 프로이트 해석입니다. **대타자는 무의식의 장소가 되고 상상적관계의 축인 소타자와 구별이 되는 것이** 라캉의 정신분석의 핵심입니다.

상상계에서의 거울 속에 비친 타자의 모습은 소타자란 것이고 소타자와 구별되는 것이 대타자 이런 무의식의 장소라는데 이런 라캉의 정신분석의 핵심인 무의식의 장소에 나타나는 대타자라는 것은 말할수나 거짓말과 같은 무의식적 담론이 자아의 지배력이 덜 미치므로 진리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이 있을 때 실수라거나 거짓말 같은 것을 말할수를 많이 하는 것은 무의식상태에서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리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적이고 명징적이고 투명하고 정확한 의식일 때만 진리에 가깝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라캉이 봤을 때는 무의식속에서 좀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말할수 여러 가지 것을 거치긴 하지만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오히려 진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캉은 소타자를 상상계의 자아가 나르시시즘에서 하나의 대상체로 작용하면서 주체를 소외시키고 속이는 이미지로 투영할 때 대상 a 처럼 간주하는 데 비해 상징계에서 주체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언어인데 이때 대타자는 존재에 대해 질문이 던지고 확답이 주어진 주체 진정원인으로 간주 됩니다. 상징계에서 대타자는 존재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을 통해 주체의 진정한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주체는 데카르트적 주체로서 무의식의 전제입니다. 대타자는 말이 진리로 확립되기 위해 요청되는 심급입니다. 또 무의식은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단절효과라고 라캉은 이야기 하는데 라캉에 있어서 무의식은 주체가 억압하는 외상적 경험이나 또는 은밀한 성적 욕망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프로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에게서 무의식은 주체가 어떤 겪었던 외상을 겪었는데 억압하거나 또는 은밀한 (리비도) 성적 욕망하고 관계되었는데 라캉에서는 이런 것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작용에 의해 주체 속에 들어난 말. 즉 **주체의 의지를 벗어나면서 반복되는 기표의 연쇄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타자가 상징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진정한 타자이고 무의식 장소에 놓인 대타자가 의식을 갖고 있는 상징계의 진정한 타자라는 것입니다. 상징계가 주체에 앞서 존재하는 초월적인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라캉은 무의식을 대타자의 담론인 언어적 차원을 강조하면서도 기표의 연쇄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지워지고 거세되는 분열된 주체로부터 무의식을 끌어내고 있다.

**기표의 연쇄작용 가운데 주체의 사라짐은 존재의 결여**를 의미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기표는 하나의 기표로 머물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표로 계속 대체되는 은유작용 속에서 주체도 무엇입니다.

무엇입니다.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그 사이 주체의 주체성 주체라는 것은 계속 연쇄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존재의 결여를 갖게 되고 결여를 의미한다. 기표의 연쇄작용 속에서 주체의 미끄러짐, 주체의 결여, 하나의 기표가 주체를 대처할 때 생기는 결여가 대타자에게 순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타자는 무의식속에서는 하나의 의미로서 주체를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결국 고정되지 않는 기표의 연속 속에서 구성되므로 하나의 단어가 또 다른 단어를 대체되는 기표의 대체를 의미화 하는 은유화에 의해 구성되고 욕망은 결여된 존재를 되찾으려는 지속적인 연결자체인 환유에 의해서 지속됩니다.

은유와 환유가 어떻게 상징계의 주체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결여된 주체형성과과정에서 나타나는 결여를 통해서 결여가 욕망의 원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욕망과 결여된 자리에 놓이는 대상 a는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세 번째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욕망/욕구/요구

첫 번째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대상 a(?)는 무엇인가? 대상 a에서 욕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욕망 욕구 욕구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라캉에게 있어서 욕망은 나머지 욕구 욕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라캉은 언어가 욕망의 조건이자 원인 계속 미끄러지는 기표 속에서 결여가 생기고 결여가 욕망하는 것의 원인이 됩니다. **언어가 욕망의 조건이자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대상을 향하지만 결국 존재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욕망이 대상을 향해 나가는데 라캉에 의해서는 성적인 것, 은밀한 충동보다는 존재와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캉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욕망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진리라는 것입니다. 욕구가 우리가 욕구하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졸릴 때 자고 싶고 피곤하면 OO 하고 싶고 생리적인 유기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욕구입니다.

**요구는 언어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이** 욕구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께 밥 주세요. 목이 말라요./ 물을 주세요 생리적 욕구를 언어를 통해서 표시하는 것이 욕구입니다. 간단한 욕구는 욕구로 전환될 때 불일치한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무엇인가 먹고 싶을 때 엄마, 뭐 해줘 했을 때에 전환될 때에는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캉은 욕구가 욕구로 전환될 때 욕구가 욕구로 표현될 때는 거기에는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결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욕구가 욕구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차이는 것이 욕망의 대상**입니다. 욕구와 욕구로 분열, 욕구가 욕구로 완벽하게 대처되지 않고 일어나는 분열은 하나의 결여의 형태로 체험되면서 욕구와 욕구의 불일치는 대타자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그렇기 때문에 대타자의 욕망이라고 말하고 대타자의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라캉은 정신분석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 ▲ 욕망과 결여의 대상 a

그때 그것은 어떤 대상의 결여를 의미하고 어떤 대상의 결여는 그 대상을 대상 a, 오브제 a 라고 붙입니다. 바로 어떤 대상의 결여 그래서 결여된 대상 오브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 a입니다. 여기서 대상 a(?)의 'a'라는 불어의 압상 부재(?)라는 뜻인데 부재의 a를 뜻하죠.

부재는 결여를 뜻합니다. **대상 a는 인간자신이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욕망하고 이때 라캉은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밝힌 것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가치처럼 인정하기를 원함으로 모든 인간의 욕망은 인정에 대한 욕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인가 욕망을 하는데 단순히 보면 결핍해서 욕망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욕망의 원인을 자꾸 무엇인지 물어보면 타자의 존재로 인해서 타인에게 타자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욕망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지구상에 혼자만 산다면 어떻게 보면 욕망도 있을 수 없죠. 예를 들면 상대적 박탈감 누군가 비교해서 굳이 비교를 한다거나 주위의 어떤 사람의 시선이라거나 나를 제외한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주위를 의식하다보고 주위와 비교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박탈감도 느끼기도 그로 인해서 완벽한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나 아닌 타자에게 인정받고자하는 욕망이 아닌가? 인정에 대한 욕망을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인용을 하면서 기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만 짧게 요약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은 인정에 대한 욕망이고 타인에 대해 인정됨을 원하는 것인데 그럴 때 타인에 의해서 인정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됩니다. 이때 타인에 대한 인정이란 것은 사르트르에 있어서 시선과 상상적인 것에서나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말했듯이 결국 타인에 의한 인정이라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한 타자에 시선에 의한 주체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주체의 성립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헤겔의 인정을 위한 노예의 투쟁을 연인,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욕망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의 자유를 소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인은 사랑받는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 그를 대상으로 환원시킵니다.

따라서 라캉의 욕망은 헤겔과 코제브를 거쳐 인간을 존재하라는 욕망과 소유하려는 욕망사이에서 찢겨진 존재라고 말한 사르트르의 입각에 존재의 결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캉은 받아들인 이해한 욕망은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기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코제브가 해석한 헤겔을 사르트르에 의해서 다시 이해된 욕망을 라캉은 사르트르에 입각해서 존재의 결여로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라캉은 언어 속에서 편입된 언어 속으로 편입된 인간존재를 주체라고 합니다. 주체는 언어 속에서만 태어나는 동시에 사라지므로 주체는 존재인 동시에 소멸하는, 주체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결여라고 보았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한 존재는 결여는 존재함으로 여기서 욕망이 발생하고 욕망은 존재의 결여의 환유입니다. 상징계에서 주체는 사라지고 주체는 언어로 재현된 존재입니다. 언어는 주체 탄생 이전에 주체를 너머선 곳에 존재하며 이러한 영역은 대타자의 장소이고 주체가 태어난 익명적인 기표의 장소입니다.

결국 주체가 탄생하지만 주체를 넘어서는 대타자의 장소가 바로 무의식을 뜻합니다. 무의식과 대타자를 설명했을 때 무의식과 대타자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주체가 태어난 익명적인 기표의 장소, 기표의 장소가 딱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가 탄생하면서 주체를 넘어서는 대타자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상징계에서 주체의 욕망은 이처럼 주체가 태어날 때 결국 잃어버린 것에 대한 욕망이고

그래서 주체의 욕망이 찾는 이 불가능한 대상이 바로 대상 a입니다.

그래서 대상 a라는 세미나 11 권에서 뭐라고 정의 했다면 라캉은 주체가 잃어버린 대상인 한에서 어떠한 대상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 구멍 안에서 입니다. 그것이 대상 a의 위치입니다. 라캉은 주체의 빈자리인 대상 a의 대한 욕망은 바로 존재에 대한 열망이고 결국 존재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진리의 욕망입니다.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갈 때 바로 상상적 남근을 상실한 어머니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이 남아 있는 구멍, 빈자리 그것이 결여이고 거기에 대상 a가 놓이기도 하지만 방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욕구가 요구의 형태로 바뀌면서 채워질 수 없는 부분 빠져나간 부분이 결여의 자리입니다.

언어로 환원해서 생각한다면 모든 의미는 기표의 연쇄, 주체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로 기표로 정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처되는 기표의 연쇄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떤 구멍 결여가 생기고 결여된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대상 a의 자리입니다.

대상 a라는 것은 결여하고 있고 뭔가 부족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욕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욕망하는 부분이 프로이트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억압된 것으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성적인 욕망이 아닌 라캉은 그 부분은 존재에 관한 것이고 존재를 폭로하는 것이고 결국 존재라는 것은 지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이 밝히고자 했던 것 특히 결여된 부분 욕망하는 부분 끊임없이 욕망 일으키고 있는 결여된 부분을 통해서 정신 분석학이 밝히고자 한 것이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와 연결된 다는 것입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 주체형성에서 상상계와 욕망의 관계

이런 주체의 형성과정 속에서 세 단계, 3 위론 속에 나타난 것에서 우리 강의에서 눈 여겨 보고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상계에서 나타난 타자로 분열된 이미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입니다.

타자, 상상계에서 주체, 어린아이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다 볼 때 그때는 처음으로 아이가 자기 주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는 단계임과 더불어서 분열되어서 자기 자신한테 소외를 느끼는 것 분열되는 것을 통해서 주체가 형성되는 것을 보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아이는 주체는 보는 주체로서 시선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저쪽 분열된 주체 거울속이미지는 거울속의 이미지가 아이를 바라다보는 그 시선은 이미 이쪽에서 떨어져나간 시선이 아닌 응시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완전한 응시의 단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주체에서 떨어져 나간 응시이고 그 응시 속에서 결국 사르트르가 강조했지만 응시를 통해서 아이란 주체가 성립합니다. 눈을 강조하지만 주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봄 자기의 시선 자기의 봄을 통해서 아니라 결국은 보여 지는 응시, 보여 지는 자기를 바라다보는 시선, 저쪽에서 바라보는 응시를 통해서 아이의 주체를 형성해나간다는 것을 그 속에서 주체를 인정해 받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계라는 것이 라캉의 주체 형성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가장 필연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단계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도 허위, 가짜 이미지가 아니라 주체형성 단계에서 또는 발전했다시피 코키토나 지식의 형성단계에서 모호함 애매하면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이미지라는 단계가 이미 그 단계의 주체형성, 인식, 지식의 단계에

우리는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체형성에서 상상적인 것과 욕망이라는 것도 결론을 내리자면 욕망이라는 것도 결여를 찾으려고 하고 메꾸려고 하고 욕망은 사적인 것을 떠나서 존재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주체의 시선과 분열된 주체의 응시라는 것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이어서 강좌에서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눈과 시선과 응시의 분열 속에서 실재의 의미와 그 속에서 예술의 의미 예술 속에서 재현된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음시간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 ◆ 실재를 향한 충동의 반복

##### ▲ 이번 강의 소개 - 눈과 대상의 응시

오늘은 미학에서 시선과 상상적인 것 6강. 벌써 마지막 강좌 데요,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 강의를 또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자크 라캉의 시각 예술론에 나타난 눈과 응시 실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까지 한 강의의 결론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와 미켈 뒤프렌 그리고 자크 라캉. 지난 시간에 한 시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 특히 시선의 의미는 실제 주체의 어떤 시선과 타자. 대상의 어떤 응시. 두 개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상상적인 것의 동일시라든가 상상적인 것이 왜 또 이미지로써 비현실인가에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써의 어떤 강좌도 있었고요.

마지막 오늘 특히 마지막을 자크 라캉의 눈과 응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체의 어떤 중심적인 눈 또는 대상에서 보여 지는 어떤 확산된 응시. 이 관계를 살펴보겠지만, 오늘의 강좌는 결국은 자크 라캉의 지난번 대상 a의 욕망의 의미였다면 이번 강좌는 대상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충동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주체의 눈과 대상의 응시가 분열되면서 그때 타자의 문제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주로 신디 셔먼(Cindy sherman)의 <무제 영화 스틸> 사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크 라캉의 자신의 그 세미나 11 번에서 시각 예술론에서 주로 예를 들었던 한스 홀바인(Hans Holbein)의 <대사들>이란 작품과 그리고 제프 월(Jeff Wall)의 <여성을 위한 사진>의 도판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 ▲ 대상화의 두 번째 의미 - 실재를 향한 충동

오늘은 지난번 강의 하고 연속적인데 우리가 그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면서 어머니의 어떤 욕망이 좌절 되면서 생기는 또는 욕구가 요구로 변화되는 가운데 다 전환되지 않는 어떤 찌꺼기.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결핍, 결여로써 느껴지고 그 결핍 결여로써 느껴지는 것이 어떤 거울을 통한 자아의 어떤 주체 분열된 상태에서 결국은 공백, 하나의 비드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대상 a라는 것은 결국 욕망에 어떤 의미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대상화의 두 번째 의미인 결국은 '실재를 향한 충동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둑맞은 편지를 예를 들면서 결국은 주체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지 않고 문자 또 어떤 담론의 가정 속에서 기표들이 미끄러지는 가운데 주체는 그 가운데서 계속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결국은 주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자이자 담론의 어떤 세계이면서 결국 무의식, 대타자의 어떤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데요.

그러면 그러한 상징계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담론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상징계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우리의 상징적, 어떤 문화적인 코드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재계라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실재계와 주이상스(jouissance), 승화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원인 대상 아의 두 번째 의미. 실재를 향한 충동을 살펴보겠습니다.

### ▲ 충동의 반복운동

라캉은 욕망의 결여에 의해 상상계와 상징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충동은 주이상스, 향유에 의해서 실재계가 상징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충동이 결국은 상징계와 실재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아. 어떤 결여로써 생긴 대상 a는 주체가 상징계로 진입할 때 떨어져 나온 결여된 대상이지만 이보다 아이가 어머니 몸에서 분리되어 탄생 할 때 원래 그때로 있지만 실제 대상 a는 처음 어머니 배속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 이미 거기서 어떤 파생된 결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대상이므로 실재계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결여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어머니의 배, 자궁에서 나오면서 떨어진 결여인데, 이런 실재계가 상실한 대상이 바로 대상 a의 의미이고 상징계 의해 실재계가 태어날 때 결여에 의해서 실재계는 구멍이 생기고, 이 구멍 난 결여는 인간이 탄생할 때 상실한 가장 근본적인 결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계에서 실재계로 넘어 갈 때 지난번에 얘기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어떤 그, 왜냐하면 항상 어떤 기표들 상징 세계라는 것은 결국문자의 세계이고 문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기표들의 세계인데, 기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없고 왜냐하면 기표는 또 다른 기표 또 다른 기표에서 계속 미끄러지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나의 구멍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멍 난 결여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상징계, 실재계 뿐 만 아니라 실제로는 태어날 때 이미 원초적으로 우리는 그 구멍 결여 된 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러 한 결여를 메우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뭔가 항상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 꿈이 이뤄지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 하겠다.’ 생각하면 그 꿈이 이뤄지고 해결이 되면 우리 또 다른 것을 꿈꾸고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되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은 계속 욕망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욕망이 알 수 없는 결여라면, 예를 들자면 “100 만원이 있으면 나는 욕망이 해결이 해결되고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없겠다.” 그러니깐 어떤 결여가 확실한 거라면 그 결여가 채워지면 모든 욕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라캉이 얘기 했던 것처럼 그 결여는 다 알 수 없는 표현 할 수 없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어떤 언어로 어떤 표현으로 정의 할 수 없는 것. 왜 정의 되거나 알 수 있는 거라면 해결이 되면 욕망이 벌써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알 수 없는 어떤 끊임없이 우리가 환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불완전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행위를 계속해서 결여를 메우려 하는 것이, 그래서 라캉은 이런 대상 a 바로 대상 a가 그런 결여를 의미하고 결여를 되찾기 위해 우리 몸에 내부 외부로 왔다갔다 반복적인 운동을 충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복 운동을 통해서 충동은 인간의 몸과 큰 타자, 대타자의 장소를 연결하는데, 그 대타자의

충동이 가로지르는 접합점이 바로 성감대라고 보았으며, 그 성감대의 특징을 틈으로 해석해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려면 틈이 없으면 왔다갔다 못하잖아요. 꼭 막혀있으면. 근데 어떤 틈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틈이 바로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입. 입술에 어떤 틈이 있죠? 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향문. 그것은 어떤 배설을 하는 행위이면서 향문이라는 것이 배설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동시적인 그러한 것이고 또 남성의 성기 또는 여성의 질 이런 것이 다 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틈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복의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감대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표현 할 수 있는 것. 입술 같은 것은 말을 표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몸의 어떤 부위가 결국 성감대로 만든 생물학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대타자 즉 언어를 만들어 내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품적으로 어떤 담론과 관계된 부분, 성적인 것과 관계된 부분이 바로 반복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충동은 생물학적인 의미인 본능과는 다른 상징계의 산물. 단순히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는 어떤 상징. 말로 할 수 있는 입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 담론이 오가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충동의 반복 운동은 무질서한 다른 것에서 동일성을 구축하는 것인데, 충동의 반복 운동.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기표의 미끄러짐에 의해서 기표를 찾아간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무라는 것은 감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나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죠?

하나의 동일성의 기표는 차이 나는 어떤 것들을 개별성을 갖다가 지니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충동에 의해서 말이라는 담론에 의해서 현실을 구축하게 되는데 여기서 라캉이 말하는 그 충동은 결국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요. 단순히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존재를 찾아간다는 존재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충동의 반복 속에서 기표는 어떻게 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시대상을 이야기 하지만 하나의 지시대상의 닳을 내리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실재계와 빗나가게 되요. 그 빗나감 속에서 역설적으로 슬퍼져야 하는데 슬픔이 아니라 충동은 만족하게 된다고 하게 되요. 그래서 라캉은 프로이드의 어떤 쾌락 원칙을 통해서 이러한 역설, 충동을 통해서 빗나가게 되는데 왜 만족하느냐, 그것을 쾌락원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 라캉의 쾌락 원칙

프로이드가 어떤 쾌락원칙을 무의식의 법칙으로 본 반면에 **무의식을 언어의 영역과 동일시한 라캉은 쾌락원칙을 현실의 원칙으로 봤어요.** 프로이드는 쾌락원칙을 무의식의 법칙으로 보고, 반면에 라캉은 쾌락원칙을 언어의 연역과 동일시한 현실 원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쾌락 원칙의 유기체의 항상성을 위해서 에너지의 긴장을 최저로 낮추려는 경향인 반면, 라캉의 쾌락원칙은 최저의 긴장 속에서 주체를 기표에서 기표로 이동하고,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긴장을 축소를 시키는데, 그러니깐 가장 낮은 상태에서 어떤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럼 그런 긴장이 최소인 상태가 죽었느냐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라 죽은 듯한 그런 영역에 들어가지만 실제 죽지는 않은, 그래서 죽음의 영역으로는 죽음인 것처럼 가장 긴장이 최소화 되어 있지만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다 보니깐 거기에 부분적인 충동만이 지니게 되고 이런 부분적인 충동만이 결국은 **절대적 쾌락인 실재계의 도달 할 수 없지만 죽음에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게 된다.**

재미있어요. 부분 충동이 절대적인 실재계에 도달은 안 해요. 하지만 부분 충동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죽음엔 이르지 않고 어떤 절대적인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가장 그런 적절한 어떤 상황을 찾았기 때문에 충동이 빗나가지만 굉장히 체념하고 슬프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재계로 조금씩 넘어간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충동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는 가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재생하는 것이고 이런 순환 속에서** 결국은 주이상스. 불어의 주이상스는 ‘희열’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그것 보다는 ‘향유’라고 할 수 있어요. **향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동의 대상은 실재계의 존재하는 구멍이나 상태로 존재하는 대상 a 이므로 결국 충동은 어떤 한 대상에 의해서 만족되지 못해요. 왜, 걸려든 어떤 부분이 하나로 만족 되어버리면 이미 만족된 상태에서 충동이 만족되니까 끝나버리거든요.

만족되진 않고 만족되지 못하고 괴롭지만은 부분적인 만족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충동에서 향유를 느끼고, 그래서 완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괴롭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또 완전하게 만족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충동이 부분적인 만족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족하고 또 갔다가 돌아와서 만족하고 요게 이제 충동의 반복운동이고 거기서 약간의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 ▲ 라캉의 실재

그래서 실재는 의미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상징화가 불가능 한 것이다. 의미의 영역, 따라서 **실재는 분열된 주체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이다. 상징화가 가능하면 그것은 담론의 세계 속에서 머물게 때문에 실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상징화가 불가능하고 또 분열된 주체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실재를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 실재는 쾌락원리에 대한 장애물로 나타난다. 불가능성은 본질로서 또 다른 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라캉이 말하는 실재라는 것은 완전한 어떤 의미로 정의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의미로 정의 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불가능한 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실재는 철학자들에게서 현실적인 것 또는 가상과 대립되는 용어예요. 사실 실재라는 것은 가상과 대립되는 용어이지만 라캉의 얘기에서는 실재는 프로이트가 심리적 현실이라고 불렀던 것, 즉 성적 욕망과 에너지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환상들과 결합시키면서 특히 죽음 충동과 결합되면서 주이상스가 향하는 상징개념어의 절대적인 영역으로 정의 될 수 있습니다.

즉 욕망을 움직이게 하고 라캉이 자신의 정신분석의 목표로 한 진리의 상관자이기도 합니다. **라캉에 의해서 실재란 상징화에 저항하고 기표들의 질서에 동화되지 않은 모든 질서.** 즉 시계를 멈추지 않는. 실재계란 주체 탄생 시 잃어버린 어떤 것, 또는 일상 속에서 환상으로부터 이루어지지 못한 성관계. 주체 언어적 상징화를 통해 표현되지 못한 욕구의 잔향, 모두. 그래서 실재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실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실재에 대해 이야기 했던 것처럼



라캉에서 실재는 실증적으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증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없고, 표현 할 수 없고, 상징화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라캉에서의 실재예요.

그러다 보니깐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욕구의 어떤 잔여물으로써 무엇이 채워지면 그것이 아닌 것이고 무엇인가 의미의 체계에 들어오지 않은 것, 이게 라캉에서의 실재예요. 그러니깐 어떻게 알 수 없는 것, 표현 할 수 없는 것, 가 닿을 수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깐 우리가 완벽하게 욕망하고 이뤄 낼 수 없는 것이 실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실재는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상징계를 벗어나 언어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실재 정의는 사후 작용.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후 작용의 논리에 의해서나 알 수 있게 되고, 언어의 표현을 넘어서기 때문에 욕망의 기착점. 그러니깐 지금 실재를 보거나 실재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알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사후 작용, 이미 실재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닿을 수 없는 것이죠.

라캉은 이러한 실재를 세미나 7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물’, ‘Ding’이라고 지칭하고 대상을 물의 지위로 고양시키는 작업을 승화라고 합니다. 대상이 물외로 가는 것을 승화라고 하는데 결국 물은 욕망의 궁극적 대상으로 주체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주체가 말을 하면서 상징 또는 표상의 현실 세계를 구사하게 되고, 또 여기서 빠져나간 찌꺼기인 상실이 주체에게. 그러니깐 주체가 욕망을 갖다가 말로 해서 이것이다 또 표상의 이것이다. 라고 하면 이미 그것을 빠져 나가요.

표현됨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것, 그렇게 되니깐 항상 어떤 여분, 찌꺼기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결국은 항상 주체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욕망하게 되고 또 그 욕망하는 것을 채워질 것 같아 표현하게 되면 또 그것이 빠져 나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끊임없이 욕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이상스. 향유의 토대가 되고 또 늘 상징계를 위협하게 되고, 결국은 실재계를 죽음의 효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완벽하게,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위협하니까 어떤 죽음의 효과로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실재는 반복의 근원이며 상상계와 상징계의 틈을 뚫고 나오는 낯선 대상으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 ◆ 원초적인 충동과 실재계

##### ▲ 라캉의 죽음 충동

실재는 주체 원초적인 것이다. 즉, 아이가 대타자의 부름을 통해 원초적 욕구와 자연적인 몸을 언어적 형태로 바꿀 때에만 주체로서 존재성을 얻게 되는데 즉, 상징계로 편입 될 때 원초적 욕구가 요구로 바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억압이 되고 욕구가 요구로 바뀌면서 다 들어주지 못하고, 다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억압이 존재하게 되고 이 억압은 무엇인가 여분으로 남게 되고 이 여분이 우리 욕망이나 충동의 대상이 되고, 또 이 충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체는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몸의 내부와 외부로 왔다 갔다 하게 되요. 내부와 외부로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까 틈인 장소이고, 이런 것이 어떤 결국은 환각의 형태로 상징계로 침투, 그러니깐 실재로 이뤄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그 충동을 실재로 다 완성해서 다 충동의 어떤 대상이 이뤄진 다면 그럼 실재계가 존재하지 않고 욕망이 거기서 끝나버린 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것을 결국은 그 충동은 환각 상태에서 상징계로 침투하게 되는데, 그것이 환각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광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동은 어떠한 충만한 실재는 주체가 다가 갈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욕망이 바로 주이상스에 지향하는 대상이고, 이것이 결국 절대적 숭고인 실재라는 것.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주이상스의 갈망은 어떻게 보면 죽음 충동과 연관이 된다. 그렇죠?

언어적 한계를 뛰어 넘고 우리 실재 생활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만족 할 수 없고 계속 끊임없이 찌꺼기와 잔여물로 남게 되는 것이 결국 죽음 충동하고 연관되며, 주체에게 허용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거기에 써드렸는데요, 죽음 충동 아까 조금 설명했던 것처럼 프로이트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란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삶의 충동은 에로스라는 것이다.

삶의 충동은 생명체가 응집력과 통일성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깐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죽음 충동은 그런 응집력이 느슨하게 되어 있고, 또 사물을 파괴할 모든 생명체가 무기물의 상태, 또는 느슨하게 되어있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의 긴장상태만 있고, 거기에는 생명체가 거의 무기물, 숨 쉬지 않는 어떤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충동이라고 대조시키면서 결국은 아까 삶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을 정의 하는데 반면에 라캉은 죽음 충동에 관한 첫 언급에서 이미 어머니의 젖가슴과의 어떤 ‘전 오디푸스적 융합’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상실에 대한 욕망으로 나르시시즘적인 자살과 연결시키고, 1950 년대에 가서 죽음의 충동이 단지 반복을 생산하는 상징계의 근본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충동은 상징계의 가면에 불가하다고 보았고, 라캉은 그 『에크리』에서 모든 충동은 사실상 죽음 충동이라고 진술하면서 모든 욕망은 그 차체 소멸을 추구하며 주체를 반복적으로 관여하게 하고 쾌락 원칙을 넘어서 즐거움이 고통으로 경험되는 과도한 주이상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즐거움이 고통의 경험으로 넘어간다.

#### ▲ 주이상스의 본질

그래서 주이상스의 본질은 무엇인가? 향유라는 것은 즉, 나는 무 존재의 순수함 속에서 ‘우주는 하나의 결여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인용한 부분이고 그 근거가 왜냐하면 스스로를 보호함으로써 이 장소는 존재를 쇠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장소는 주이상스라 불리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텅 비게 된다. 우주에서 뭔가, **우주는 하나의 결여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 만족 시킬 수 없고 항상 끊임없는 만족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으로서 욕망보다는 충동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욕망을 자극하게 되고 이 자극하는 것이, 만족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주이상스라 불리게 되는데, 주이상스, **향유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성적 대상에서 나오는 쾌락을 의미하지만, 특히 라캉 같은 경우는 항상 성적,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성적 대상에서 나오는 쾌락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주이상스이다.**

주이상스는 항상 어떤 일정 범위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결국 주이상스는 상징계의 속성인 **반복강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쾌락 너머로 가보려는 정복적인 충동으로 결국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파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강박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즉 몸 적 체험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실재계적 몸 적 체험은 직접 경험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환자의 증상 속에 나타나는 고통을 예로 들면서 고통이 되풀이되기를 통해 만족을 구하는 모순적인 행위로부터 대상 a 의 실재계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환자가 고통을 반복하게 될 때 반복 속에서 힘들고 죽음의 상황으로만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주이상스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모순적인 행위 속에서 대타자, 대상 a 의

실재계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세 번째 주이상스는 죽음 충동을 통해 쾌락 원리를 넘어 영원히 잃어버린 대상의 물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고, 이 실재계에서 상실된 물을 대상으로 삼는 욕망은 영원히 지속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사물과의 원초적인 접촉을 상실하고 사물의 상징적인 것으로 구축할 때 발생한 결여를 대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할 때 결국 **환상 속에서 주체에게 다가오는 알 수 없는 그 상실의 원인**이 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불가능한 대상인 물은 죽음 충동 속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주이상스는 죽음 충동, 그 고통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충동의 승화

그리고 여성적 주이상스는 거세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을 넘어서는, 남근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하고 결국 절대적인 주이상스의 경험이 가능함으로 대타자의 주이상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이상스는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닌 상징계 내에서 여성적 위치를 말합니다.

주이상스는 여성적인데, 그 여성적이라는 것은 결국 생물학적인 여성성이 아니라 라캉에서의 남근, phallus 라는 것은 남성의 phallus 가 아니라 phallus 는 상징적인 것이예요. 여성성에 비해서 phallus 는 좀 더 지배적, 이제까지 남성 지배적인 남성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적인 담론이 phallus 라고 한다면 그것에 비껴있는 것이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나 남성 가치관의 세계에서 좀 더 여성은 소외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성이라는 것은 주체적인, 지배적인 것에서 벗어난 소수적인, 비주류적인 것**. 어떤 이러한 것은 여성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여성적 주이상스이고 또 거기 **거세에 종속되지 않는 언어적인 것을 넘어서는**, 언어라는 것은 대타자적인, 남근적인, 남성의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여성적 주이상스가 생물학적인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재는 상징계에 통합되지 않는 틈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메시지로 보내는데 이것이 증상. 증상이라는 것은 결국 상징계에 통합되지 않는 틈을 말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실재계가 그 자체로 향유되기를 바라는 실재계의 요구이고, **증상은 자체의 만족을 위해 승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충동은 승화되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승화라는 것은 프로이드는 승화를 성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공인된 활동인 예술 문화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성적 에너지가 승화되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라캉은 프로이드의 승화 개념을 비판하고 성적 충동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계와 관계 속에서 촉발되는 반작용 같은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결여이고 성 에너지의 승화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화를 쾌락원리가 부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점에서 성 도착과 같은 것을 보았는데 예를 들어 사드 작품, 사드는 굉장히 문란한 그런 것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사드 작품의 주체인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도착 행위는 변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변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태적인 행동을 바로 대타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속에서 어떤 주이상스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고, 대상에 위치해두는 희생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마조히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즉, 승화는 대타자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사적 욕망을 포기하고 대상을 물의 지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주이상스의 형태이므로, **승화의 본질은 물에 대한 향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는 쾌락 원리 넘어 존재하는 물에 접근 할 수 없으므로 주체는 단지 환상 속에서만.... 그릴죠?

왜냐하면 언어 속에서 상징화된 것,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 이미 충동이 만족되지 않고 실재계가 저 쪽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결국 물에 접근 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충동을 환상 속에서만 대상을 물의 위치까지 고양시키고, 그 환상 속에서만 우리는 바로 승화의 체험을 통해서 물을 만난다.

그래서 결국은 환상, 환각, 예술 활동 속에서 우리가 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승화의 체험을 만족 할 수 있다. 실재에서는 만족 할 수 없어요. 만족 할 수 있으면 이미 물이라는 것은, 대상 a는 저 쪽으로 실재는 달아나 버리고 또 불만족 하게 되고, 결국 예술 활동 속에서 잠시나마 승화의 체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 ▲ 원초적 파들과 예술

이런 이야기는 메를로퐁티 이야기 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메를로퐁티가 자신의 논문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에서 우리 몸이 세상과의 생생한 접촉, 이미 말해지거나 사용된 언어의 세계는 상징계를 통해, 그러니까 메를로퐁티가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에서 바로 어떤 상징, 말로 표현 될 수 있는 것, 언어로 표현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틈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라캉이 말한 상실된 찌꺼기로써 볼 수 있는 것은 메를로퐁티가 말한 원초적 빠를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원초적 빠를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상징계 속의 말, 언어로는 포착하기 힘든 것이예요.

**원초적 빠를은 항상 예술 활동 속에서 간접적이고 침묵의 형태로만 포착 될 수 있는 것이고, 라캉도 마찬가지로 물이 라는 것은 간접적인 어떤 승화, 예술의 환각 속에 환상 속에서만 우리가 그려 낼 수 있고, 환상의 체험들 속에서 물의 상태였다가 도달 할 수 있는, 결국 그런 의미에서 맥락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간접적이고 침묵의 언어인 예술적 표현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고 메를로퐁티가 이야기 한 것처럼 라캉도 언어적으로 표현 될 수 없는 물, 즉 **실재는 예술에 대한 주이상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과 맥이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반복적 외상과 실재와의 만남

그럼 실재 뒤시에와 풍크르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실재라는 그것이 결국 지금 얘기 한 것처럼 라캉도 결국은 실재는 예술에 대한 주이상스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메를로퐁티도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 생생한 그런 것은 간접적인.... 왜 철학이나 문학 어떤 그런 담론 속에서 보다는 예술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실재는 어떻게 만나나?

실재의 만남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것은 4 번. 제가 정리한 실재 즉, 뒤셰와 풍크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데요. 그것은 할 포스터가 『실재의 귀환』에서 잘 이야기 해 놓고 있어요. 팜의 반복적인 이미지들을 보드리야르식 시뮬라크르보다는 라캉의 프로이드에게 영향을 받은 외상적인 반복 개념으로 분석하는데요, 할 포스트가요.

- 라캉은 세미나 11 의 「무의식적인 반복」에서 실재로 외상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실재는 외상적인

것과 어긋난 만남으로 제현 될 수 없고 반복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반복 혹은 재생산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워홀에게서 반복은 시뮬라시옹에서 반복이 아니라, 외상적인 실재를 가리키는 스크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재는 반복의 스크린의 파열시켜서 결국 이미지에 의한 파열에 의해 건드려진 두체, 주체의 지각과 의식 사이의 파열을 라캉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연적 인과성이라고 한 두체와의 실재와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나 하면, 그런 실재는 결국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달아나고, 만족 될 수 없고, 결국 실재는 아까 예술을 통한 주이상스를 통해서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실재와 만났을 때는 어떤...

특히 롤랑 바르트가 자신의 『밝은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두체라는 것은 결국 풍크툼이 와서 찢린 자국, 풍크툼은 사진에서 세부적인 것이 나한테 굉장히 개별적인 경험이에요, 사적인 경험인데 나만의 어떤 무엇인가 주는 것은 풍크툼인데, 그때 풍크툼이란 것이 바로 어떤 실재와의 만남이에요.

두체라는 것이죠. 이런 두체는 실재의 만남이고, 즉 나는 두체가 다음가 같은 차원, 시각 기능에서 우연한 점이 발견 될 때, 그것을 내가 얼룩이라고 부르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라캉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라캉은 바로 두체라는 것은 실재와 우연히 만나는 것이고 그것은 얼룩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얼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르트는 『밝은 방』에서 어떤 사진에서 또 화살처럼 나에게 모든 사람이 아닌, 개별적인 나에게 달려와 관통하고 트라우마를 내고, 그래서 뾰족한 도구에 의한 이러한 상처, 찢린 자국이나 흔적을 외상을 바로 풍크툼이라고 칭하는데, 따라서 앤디 워홀이 반복은 외상적 실재를 고정시키거나 가리는 반복,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나 코카콜라의 반복적 보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반복적인 것은 결국은 반복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요. 드러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앤디 워홀에 있어서 반복 이미지를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로로 해석하는데 할 포스터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그렇게 반복 이미지는 실재계가 드러나는 것, 실재계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풍크툼이 스크린을 뚫고 나오면 실재적인 것이 드러나게 해줌으로 라캉은 실재가 구멍 속에 있다고 하면서, 풍크툼이 스크린을 뚫고 나오면서 실재적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실재가 구멍 속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그것과 구멍 (trou). 그래서 trauma, trou. 동음이어로 활용하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실재가 깨뜨리고 나온 구멍과 저쪽에서 활살처럼 날아 와서 나에게 상처를 준 트라우마와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재와의 만남 두체라는 것이, 두체가 어떻게 보면, 실재가 파열되면서 나오면서 만나는 구멍과 어떤 상처를 내는 트라우마가 비슷하게 때문에 결국 바르트의 『밝은 방』에서 나타난 두체, 우연한 만남, 그러니깐 풍크툼이라는 것,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실재가 반복된 이미지, 앤디 워홀의 작품 속의 반복적 이미지 속에서 반복 충동, 왔다 갔다 하는 반복 행위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어느 순간에 실재계가 우연하게 나타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바르트는 우연한 만남, 우연하게 무엇인가 화살처럼 나타나 상처를 내는 트라우마와 우연하게 터뜨려지는 실재가 나타나는 트라우마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단어도 동음이고. 그래서 라캉은 무의식적인 것과 반복에서 반복과 복귀를 구분하고 반복은 징후나 기표로써 억압된 것의 반복을 의미하며 자동장치라고 부르고 복귀는 실재와 외상적 만남과의 복귀이며 이것을 라캉은 두체라고 칭한다.

- 이것은 위홀의 이미지에서 두 가지 반복과 연관되는데 **외상적 실재를 가리기 위한 이미지의 반복과 가리기 속에서 우연적으로 복귀하는 외상적 실재**와 관계있다는 것이다. 즉 참고로 외상의 지점은 선 원근법에 있어서 소실점과 연관이 있는데 소실점이 묘사된 세계가 보는 자를 되받아 보는 지점이다.

그래서 실재가 귀환하는 이 지점을 승화시키기 위해 이 지점에 신의 무한성, 자연의 무한성을 표상하는 이미지를 그려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